

# 세계 유명주간지의 출판기사

## 미국·영국·독일·일본의 경우를 중심으로

### 이봉호

매일경제신문 국제부 기자

현대는 정보화의 시대라고 한다.

과학기술의 획기적 발전은 한국에서 물리적,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유럽이나 美 洲 지역의 움직임을 리얼 타임으로 알 수 있게 해주고 있다. 지구인이 한가족처럼 가까워진 지금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정보가 그만큼 얻기 쉽게 된 것은 사실이다. 그만큼 비밀이 없어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다는 사실에도 우리는 염두를 두어야만 할 시점인 것이다.

정보의 전달매체의 하나를 생산해내는 출판행위에 있어서도 이제 국제적인 흐름을 꿰뚫어 보고 나름대로의 전략을 세워 작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획득한다는 것은 경쟁에서의 승리를 의미한다. 특히 아이디어와 정보가 핵심을 이루는 출판행위에 있어서 최신 정보와 흐름의 맥을 짚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은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이다.

세계 각국에서 매주 발행되는 주간지는 그나라의 출판에 관한 최신 정보를 담고 있다. 세계 각국의 주간지들이 어떻게 출판정보를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그들의 기사를 통해 우리 출판계가 수용해야 할 정보가 무엇인가를 알아본다.

### 타임

1923년 미국의 브리턴 하든과 헨리 루스가 창간한 시사주간지. 한국의 지식인에게 가장 친숙해 있는 세계적인 잡지로 발행부수는 5백만부를 육박하고 있다.

지면구성은 미국과 세계의 핫이슈를 기명기사로 다룬 커버스토리나 함께 매호 부문별 테마로 의학·법률·경제·교육·출판·음악·영화·서평·극평·에세이 등으로 꾸며지며 모두 기명기사로 씌어진다.

매호 평균 55페이지정도의 분량으로 발행되고 있는 이 잡지는 서평과 해외신간안내란에서 책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고 때때로 기획기사로 미국 출판계의 흐름을 보도하고 있다. 매주 한페이지씩 고정적으로 실리고 있는 서평란은 한주에 3~5권의 책이 전문서평가에 의해 소개되고 평가를 받고 있다.

그 주에 서평으로 소개되는 책들 가운데 가장 비중을 두고 있는 책은 저자의 근황을 짚는 스톱사진과 함께 저자·출판사·페이지수·정가가 표시되고 있다. 서평으로 소개되

는 책은 장르에 구분없이 전문서평가에 의해 선택된 책들이다.

서평과 함께 매호마다 아니지만 가끔씩 소개되는 해외신간도 참고할 만하다. 한페이지 분량으로 4개국의 신간도서를 표지사진과 함께 내용 요약하고 있다.

지난 4월 30일호 이 잡지 해외신간란 'International Readings'에는 한국의 책인 「휠체어에 사랑을 싣고」(고명승 지음, 고려원 판)가 「Carrying Love from a Wheelchair」라는 영어제목으로 소개되기도 했다.

이밖에 인도네시아, 인도, 프랑스, 스페인, 오스트레일리아 등 국가에 편견없이 비중있는 신간이면 모두 소개되고 있다.

### 뉴스위크

TIME誌보다 꼭 10년뒤에 창간된 미국의 시사주간지. 창간은 뒤졌으나 날카로운 현실감각과 지적인 판단력으로 미국의 당면문제를 재치있게 분석보도함으로써 미국지식인들 사이에서 TIME誌보다 오히려 높은 평가를 얻고 있다.

이 잡지의 특징은 기명기사제도를 채택, 필자의 개성과 필치를 한껏 발휘할 수 있게 하고 있다는 점과 미국의 유명한 경제학자인 헨리 워릭, 사무엘슨(MIT 교수) 프리드먼(시카고대 교수) 등 경제학자를 초빙, 새로운 시각의 경제칼럼을 게재한 것도 획기적인 편집 기획으로 평가되고 있다.

매주 빠짐없이 우리나라 곳곳에서 볼 수 있는 이 잡지는 매호 평균 55페이지분량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아시아·유럽 등 세계각지에서 벌어진 주요 이슈들을 분석·정리하고 있다.

뉴스위크誌는 권말부분의 「Back of the Book」이란 코너에서 문화일반 및 각 전문분야를 다루고 있다. 이 코너에서 책은 전문서평가들이 기명으로 쓴 서평을 통해 소개되고 있다.

한번에 한두권의 책에 대한 서평을 한페이지 정도의 지면에 싣고 있으며 권수가 적은 대신 상당히 수준높고 날카로운 비평을 가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우리나라 독자나 출판사들이 책을 선택하는 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폭넓은 안목으로 씌어진 글은 우리의 시각을 넓혀주는 데 한몫을 하는 것들이다. 소개되는 책은 주로 미국에



서 출판된 문학부터 사회과학도서까지 다양하다. 자주 등장하는 서평가로는 Peter S. Prescott 를 꼽을 수 있다.

### 비즈니스 위크

「포브스」(Forbes), 「포천」(Fortune)과 함께 미국 3대 비즈니스 저널리즘의 하나.

대공황에 의한 미국 주식시장 붕괴 직전인 1929년 창간된 이 주간지는 일간지인 월스트리트저널과 함께 미국 기업경영층이나 셀러리맨에게 필독서로 꼽힌다.

창간 당시 「매거진 오브 비즈니스」라는 제호로 7만 5천부가 발행된 이 잡지는 세계적인 대형출판사 맥그로 힐사가 내놓고 있는 60개 전문잡지 가운데 가장 좋은 수입원이 되고 있다.

비즈니스 위크의 기사는 일반적으로 잘 조사되고 시의적절하며 광범위한 층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평가된다. 비즈니스 위크誌는 기업전략, 경제일지, 노동, 경영과 함께 서평란을 고정적으로 싣고 있다.

미국에서 발행되고 있는 유일한 주간 경제지인 비즈니스 위크는 매주 평균 70여페이지 정도의 분량이다. 다른 주간지와는 달리 이 잡지는 서평에 큰 비중을 두고 있는데, 그중거로 대부분의 잡지들이 서평이나 신간안내 기사를 책 거의 뒷부분에 편집, 그저 모양 갖추기에 급급한 실정이지만 비즈니스 위크만이 유일하게 이 잡지 앞부분- 거의 맨 첫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에 갖다 놓고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2페이지 정도의 지면에 할애되고 있는 비즈니스 위크의 서평란은 서평가의 기명은 물론 그의 현직까지 소개하고 있어 신뢰성을 더해주고 있는 것도 다른 잡지와 구별되는 특징이다. 주로 미국에서 출간되는 최신 도서를 한권 또는 같은 주제로 2~3권 묶어 서평을 싣고 있으며 「BOOK BRIEF」라는 코너에선 원고지 3~4매 분량으로 신간의 내용을 요약해 주고 있어 참고할 만하다.

이와 함께 미국의 경제·산업·사회·기업경영 등의 분야의 신간이 집중소개되고 있어 경제관련도서에 눈을 뜨기 시작한 우리 출판계가 관심을 둘 만한 잡지라고 할 수 있다.

### 더이코노미스트

세계각지의 경제동향 및 시사문제, 정치문제를 심층취재보도하는 영국의 세계적 시사잡지로 1843년에 창간된 주간지.

대부분의 기사가 매우 현장감 넘치고 비교적 짧은 기사이면서도 많은 양의 정보를 전해 주고 있다. 전체적인 논조는 보수적이거나 큰 제목 또는 일러스트레이션이 때때로 적극적이고 참신한 것이 특징.

매주 평균 1백10여페이지의 분량을 발행하고 있는 이 잡지는 지면을 각 나라별 이슈, 비즈니스, 재정문제, 과학기술부분, 경제지표, 그리고 책과 예술이라는 코너로 짜놓고 있다.

이 잡지 끝부분에 소개되고 있는 도서에 관한 기사는 평균 2페이지만 가량의 지면을 차지한다. 도서소개란의 첫 페이지에는 그주의 가장 비중있는 도서에 대한 내용소개 및 평가가 무기명으로 실리고 있다.

가끔씩 같은 주제를 다룬 두세권의 책을 묶어 소개하기도 하는 이코노미스트誌의 도서 코너 첫 페이지는 경제전문지라는 성격과는 다른 일반 문화, 역사, 사회, 과학분야 도서가 많이 소개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두번째 페이지부터는 첫페이지보다는 짧은 책소개 기사가 때로는 기명으로, 일반적으로는 무기명으로 실린다. 책제목·저자·출판사·페이지수·정가가 소개됨은 물론이다. Simon & Schuster, Macmillan 등 주로 영·미출판사들이 내놓은 신간들이 정치·문학·역사분야 등 골고루 선택되어 소개되고 있다.

이와함께 출판관련 기획기사도 가끔 실려 영·미의 출판동향을 읽을 수 있게 해주는 것도 특징이다.

#### 파이스턴 이코노믹 리뷰

1946년부터 홍콩에서 매주 화요일자로 발행되고 있는 시사·경제 주간지.

제목에서 알 수 있듯 주로 일본·미국·홍콩·중국·말레이시아 등 아시아지역 국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회·경제문제를 세밀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 이 잡지의 특징이다.

매주 평균 65페이지 정도의 분량으로 발행되고 있는 이 잡지는 고정란으로 도서관련 기사를 싣고 있다. 한 주일에 2페이지에서 2페이지 반에 걸쳐 주로 아시아지역 국가에서 출간된 신간을 기명서평 형식으로 소개한다. 보통 4~5권 정도의 책이 다양한 분야에 걸쳐 소개되고 있는 셈이 된다.

때로는 공통된 주제를 갖고 있는 책들을 2~3권 묶어서 상당한 분량으로 소개하기도 하는 이 잡지는 다른 잡지들과는 달리 가끔 'BOOK SPECIAL'란을 10여페이지나 마련, 한나라의 상황을 그 나라에서 발행되는 책을 통해, 아니면 그 나라와 관련 외국에서 발행된 책을 통해 집중 조명하기도 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매주 빠짐없이 이 잡지에 나오는 출판관련 기사를 체크해 볼 경우 아시아지역 국가들의 출판동향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日經 비즈니스

일본의 세계적인 경제지인「日本經濟新聞」의 자매지. 격주간으로 발행되며 올해로 창간 21주년을 맞은 종합경제전문잡지이다.

주로 일본경제 및 기업활동을 소개하는 기사를 취급하고 있는「日經비즈니스」는 국제정세의 흐름도 경제적인 시각에서 짚어내고 있는 것이 특징. 매호마다 평균 2백10여페이지 남짓한 분량으로 발행되고 있는 이 잡지는 책과 독서 관련 기사에 매호마다 빠짐없이 2페이지를 할애하고 있다.

「off·BUSINESS」라는 이름으로 책에 관한 기사를 소개하고 있는 이 잡지는 '나의 책' '지금 독서중' '비즈니스도서 베스트셀러'라는 세가지 소항목으로 편집되고 있다.

'나의 책'이란 코너에서는「日經비즈니스」의 성격에 걸맞게 주로 일본기업 경영자들 가운데 한사람을 선택, 그가 감명깊게 읽고 추천한 책을 간략한 해설과 함께 소개하고 있다. 이 코너에 소개되는 책들은 경제관련도서보다는 교양·문화일반도서가 많은 것이 이채롭다.

이와함께 칼럼편집으로 쉽게 눈에 띄는 '지금 독서중'이라는 코너에는 이 잡지독자(주로 기업체 경영자)에게 설문조사결과 회답되어 온 내용을 소개하면서 독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 것이 특징. 이 코너에는 독자들이 ▲최근에 읽은 책 ▲감명깊게 읽은 애독서 ▲앞으로 읽고 싶은 책들의 이름과 저자, 출판사명과 함께 간단한 책 소개도 하고 있어 추천도서목록 구성을 하고 있다. 한번에 8명이 추천한 3권씩 모두 24권의 책이 소개된다. 또 비즈니스관련 베스트셀러 목록도 수록, 최근 비즈니스관련도서 베스트셀러 No. 10을 책명·저자·출판사·가격을 짚막한 내용 소개와 함께 표로 소개하고 있다.

#### 東洋經濟

일본의 동양경제신보사가 매주 토요일자로 발행하고 있는 주간 경제지.

1895년 창간돼 올해 안에 총 5천호를 내놓을 것으로 보이는 96년 전통을 자랑하는 잡지이다. 매호 1백40여페이지 안팎의 분량으로 짜여지는 이 잡지는 책 소개를 5페이지에 걸쳐 소개, 다른 잡지보다 상당한 지면을 할애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잡지는 기자들이 쓴 서평과 신간소개

그리고 '금주의 10冊' '東洋經濟출판소식'코너 등 다채로운 란을 통해 책을 소개하고 있다. 서평은 책사진과 함께 2백자 원고지 7매분량으로 구체적인 내용소개와 함께 책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러한 전문기자들에 의한 서평으로「東洋經濟」는 매주마다 평균 5권정도 싣고 있다. 소개되는 책이 경제관련도서에만 국한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다.

이 잡지 출판소개란의 또하나의 특징은 '금주의 10冊'코너. 일반 잡지들의 베스트셀러 목록과 같은 성격을 띄고 있는 이 코너는 책이름·저자·출판사·가격 소개는 물론 10권에 대한 성격규정 해설도 곁들이고 있다. 담당기자 2명이 선정한 10권의 책을 표로 작성, 소개하면서 해당 책 안에 책에 대한 평가를 별도로 표시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별표 1개는 심심풀이용 책, 별표 2개는 특정분야 전문도서, 별표 3개는 일반교양도서, 별표 4개는 필독도서로 되어 있다. 이같은 책에 대한 평가는 그 책을 선정한 담당기자들(2명) 가운데에서도 차이가 나고 있어 흥미롭다.

#### 이코노미스트

1924년에 첫선을 보인 일본의 경제주간지. 일본 毎日신문사가 매주 화요일에 발행하고 있다.

매호 110페이지 정도 두께로 컬러편집은 전혀 사용치 않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국제정치·경제기사를 비중있게 싣고 있다. 이 잡지에서 책은「本 BOOK REVIEW」라는 코너에서 7페이지에 걸쳐 소개되고 있어 전문 북리뷰誌가 아닌 잡지로서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받고 있다.

이코노미스트誌의 북 리뷰코너는 서평·신간안내·칼럼·해외리뷰 등 4개부분으로 구성된다. 서평은 매호마다 3~4권에 대한 것이 싣리며 모두 대학교수들에 의해 그 책이 갖는 의의와 내용이 2백자 원고지 6매분정도 분량으로 썬어지고 있다. 신간안내는 그 주에 나온 신간중에서 주로 사회과학분야 도서를 4권정도 선별, 내용을 요약·소개한다.

다른 잡지와는 달리 고정 출판칼럼을「筆力直評」이란 이름으로 싣고 있는데 화제의 책을 한권 선택, 시사성 있는 내용으로 재미있게 꾸미고 있다.

이코노미스트誌가 책에 관한 기사를 다루는데 있어 또하나의 특징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해외 리뷰」코너. 毎日신문사의 해외특파원들이 현지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책을 한권 선택, 내용을 요약·소개하고 있어 해외출판동향을 읽을 수 있게 해주고 있다.

#### 슈피겔

올해로 창간 44주년을 맞고 있는 서독의 시사 주간지. 미국의 타임이나 뉴스위크와 유사한 잡지로 유럽지역에서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진보적 색채가 두드러지는 잡지이다.

타임이나 뉴스위크誌와는 달리 매주 2백50~3백페이지라는 엄청난 분량의 기사가 실리는 것이 특징. 다루고 있는 내용은 독일국내문제, 유럽문제 그리고 세계문제·스포츠·문화계동향·인터뷰·북 리뷰 등으로 이어지며 때때로 몇개월씩 긴 시간을 투입, 심층취재한 기획기사로 호평을 받기도 한다.

전반적인 기사의 톤은 생생한 현장감이 넘치며 객관적이다. 깊이있고 무게있는 논설은 독일사회 뿐만 아니라 유럽사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슈피겔誌의 출판관련기사는 크게 세부분으로 나뉘어질 수 있다.

첫째가 북 리뷰로 한권의 책이 담고 있는 내용을 철저히 분석, 2~3페이지에 걸쳐 심층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저자들'이란 코너에서는 기명으로 최근 신간을 출간한 저자들의 작품세계를 한 페이지정도 소개하고 있다.

또 'Büchesspiegel'이란 코너에선 신간들이 표지사진과 함께 짚막한 내용으로 소개되고 있다. 전체분량으로는 매주 6~8페이지 정도가 출판관련기사로 할애되고 있으며 다른 잡지에 비해 심도가 깊은 것이 특징이다.

또 하나의 특징은 베스트셀러 목록표. 슈피겔誌는 매주 문학부문과 사회과학부문의 베스트셀러 15권의 금주 순위와 지난주 순위를 소개하고 있다. 이 베스트셀러 목록표는 우리나라 출판계에는 소원한 유럽 및 독일의 출판계 동향을 한눈에 보여주고 있어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